

천도교의절(天道教儀節)

천도교중앙총부

서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회(社會)를 이루고 모든 사물(事物)과 접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치를 천도교에서는 「대인접물(待人接物)」이라고 말합니다.

대인접물에는 반드시 절차와 규범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예절(禮節)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제멋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사회의 질서가 문란하여질 것이며, 사물을 접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 분별 없이 취급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대신사께서는 「삼강오륜 밝은 법은 예 없으면 어디 나며 대장부 지혜범절 엄치중에 있었으니…」라고 하시어 인간 사회의 예의와 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불군(君不君) 신불신(臣不臣) 부불부(父不父) 자부자(子不子)라’ 하시며 선천(先天) 시대 윤리 도덕의 퇴폐를 개탄하시고, 후천(後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시천주(侍天主)의 새로운 신앙과 예절을 창명하셨습니다.

모든 예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종교신앙의 종지(宗旨)와 교리, 그리고 성현의 심법과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생활과 문화와 직결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수많은 절차(節次)와 예법(禮法)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허례허식에 흘러서, 고루한 아집과 허다한 명분론에 사로잡혀 우리의 생활에 도리어 폐단과 위축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조상 전래의 전통이나 문화유산은 길이 보존해야 하고 고유한 미풍양속을 전승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것은 그 원리와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겉치레나 번잡한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상호 존경과 겸양과 신의를 주로 하고 감정의 표현을 과불급 없이 조화시켜 사회의 도덕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의절의 기본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천도교의 의절(儀節)은 시천주(侍天主),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 수심정기(守心正氣), 성경신(誠敬信)에 그 뿌리를 두고 천지부모(天地父母), 이신환성(以身換性), 부화부순(夫和婦順), 삼경설(三敬說), 향아설위(向我設位), 성령출세설(性靈出世說) 등 제법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출입(出入), 기거(起居), 동정(動靜), 대인접물(待人接物), 관혼상제(冠婚喪祭) 등 모든 의식과 예절을 간소하면서도 엄숙하게 그리고 과거의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교리에 어긋남이 없이, 또한 우리의 실정에 알맞게 제정한 것입니다.

천도교의 의절은 기본 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학 초기에 입도(入道) 절차와 고천(告天), 주문(呪文) 등 수행 절차가 정해졌고, 포덕 25년 제61회 대신사 탄신향례일에 제의규범(祭儀規範)을 정하여 실행하였습니다. 그 후 각종 기념행사와 향아설위(向我設位)의 제례 등이 추가되었고, 포덕 41년에는 입도문, 47년에는 입교문(入教文)이 있었고, 포덕 52년에 오관(五款) 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포덕 66년에 ‘천도교의절’을 반포(頒布)한 이래 포덕 87년과 109년에는 의절 개정이 있었

으며, 그 밖에도 몇 차례의 증보 개정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개정, 보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발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의 의절도 실생활에 비추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인내천의 새로운 도덕문명을 열어나가는 우리는, 이 의절의 역사적인 의의와 제정된 기본정신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의절을 모든 의식(儀式)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절의 생활화를 위하여 실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각종 예문을 수록한 의절 해설서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절의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천도교 의절이 우리 천도교인의 생활지침이 되는 동시에 일반 국민의 가정의례준칙으로 활용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차 례

제 1 편 입교의례(入敎儀禮)

제 1 장	입교식(入敎式)	13
제 1 절	입교식 절차	13
제 2 절	입교식 심고와 서천문(誓天文) 예문	14

제 2 장	복교식(復敎式)	17
제 1 절	복교식 절차	17
제 2 절	복교식 심고 예문	18
제 3 절	참회문(懺悔文)	18

제 2 편 교인의 수행의례(修行儀禮)

제 3 장	심 고(心告)	21
제 1 절	식 고(食告)	21
제 2 절	통상심고(通常心告)	23
제 3 절	의식심고(儀式心告)	24

제 4 장	오 관(五款)	26
제 1 절	주 문(呪文)	26
제 2 절	청 수(淸水)	28
제 3 절	시 일(侍日)	30
제 4 절	성 미(誠米)	31
제 5 절	기 도(祈禱)	32

제 5 장	수도(修道)와 실행요령(實行要領)	35
-------	--------------------	----

제 1 절	경전봉독(經典奉讀)	35
제 2 절	수련(修煉)	36
제 3 절	사계명(四誠命)	38
제 4 절	여덟 가지 수칙(守則)	38
제 5 절	십무천(十毋天)	39
제 6 절	임사실천십개조(臨事實踐十個條)	40
제 6 장	도호수여식(道號授與式)과 독공(篤工)	40
제 1 절	도호 수여 절차	40
제 2 절	도호수여식	41
제 3 절	도호수여식 때의 심고 예문	42
제 4 절	특별기도와 독공(篤工)	43
제 7 장	포덕(布德)	43
제 3 편	기념식 및 각종 행사 의례	
제 8 장	기념식(紀念式)	45
제 1 절	득도(得道) 및 승통 기념(承統紀念)	45
제 2 절	현도(顯道) 및 혁명 기념(革命紀念)	47
제 9 장	탄신(誕辰) 및 환원 기도식(還元祈禱式)	48
제 1 절	탄신기도식(誕辰祈禱式)	48
제 2 절	순도(殉道) 및 환원 기도식(還元祈禱式)	50
제 10 장	사은기도식(謝恩祈禱式)	51
제 1 절	감사기도(感謝祈禱) ; 가정적	51
제 2 절	봉고기도(奉告祈禱) ; 교회적	52
제 3 절	봉고문(奉告文) 예문	52
제 11 장	위령식(慰靈式)	54
제 1 절	대신사 및 순도선열 합동위령식	54
제 2 절	위령식 심고 예문	56
제 3 절	위령문 예문	56
제 12 장	신년합동배하식(新年合同拜賀式)	60
제 13 장	참례식(參禮式)	61
제 14 장	제막식(除幕式)	62
제 1 절	동상제막식(銅像除幕式)	62
제 2 절	기념비 · 유허비 · 묘비 제막식	63

제 15 장	경축식(慶祝式)	65
제 1 절	공사기공식(工事起工式)	65
제 2 절	교당준공식(教堂竣工式)	66
제 3 절	교당현판식(教堂懸板式)	68
제 4 절	개강식(開講式) 및 졸업식(卒業式)	68
제 5 절	도첩(道帖) 및 훈장·표창패 수여식	70

제 4 편 일반 경조사(慶弔事) 의례

제 16 장	생일축하식(生日祝賀式)	71
--------	--------------	----

제 17 장	성년식(成年式)	72
--------	----------	----

제 18 장	혼례(婚禮)	73
제 1 절	약혼식(約婚式)	73
제 2 절	혼인식(婚姻式)	75

제 19 장	수연(壽宴)	78
--------	--------	----

제 20 장	상례(喪禮)	79
제 1 절	수시(收屍) 및 환원기도식(還元祈禱式)	79
제 2 절	조문(弔問)과 기도식	81
제 3 절	입관식(入棺式)	82
제 4 절	발인식(發靱式)	85
제 5 절	영결식(永訣式)	86
제 6 절	하관식(下棺式)	90
제 7 절	사진봉안식(寫眞奉安式)	92
제 8 절	상기(喪期) 및 탈상(脫喪)	93

제 21 장	제례(祭禮)	94
제 1 절	제례의 절차	94
제 2 절	제례식 심고의 예문	95
제 3 절	추모사(追慕辭)의 예문	95

제 22 장	차례(茶禮)	96
제 1 절	차례의 절차	96
제 2 절	차례의 심고 예문	96

제 5 편 경전(經典)과 예품(禮品)

제 23 장	경전(經典)	97
--------	--------	----

제 24 장	궁을기(弓乙旗)·궁을장(弓乙章)	97
--------	-------------------	----

제 25 장	스승님의 존영(尊影)	98
제 26 장	예복(禮服)	99
제 27 장	염주(念珠)	99
제 28 장	청수기(清水器)·청수상(清水床)	100
제 29 장	기타	100
제 6 편	생활예절(生活禮節)	
제 30 장	가정생활예절	102
제 1 절	가화(家和)와 청결(清潔)	102
제 2 절	부화부순(夫和婦順)과 내수도(內修道)	102
제 3 절	효도(孝道)와 보국안민(輔國安民)	103
제 31 장	일상생활 규범(日常生活 規範)	103
제 1 절	일상생활	103
제 2 절	의관정제(衣冠整齊)	104
제 3 절	음식(飲食)	104
제 4 절	인사(人事)하는 법	105
제 5 절	언어(言語)	106
제 6 절	자세(姿勢)	107
제 7 절	공중도덕(公衆道德)	107
제 8 절	대인접물(待人接物)	108

제 1 편 입교의례(入教儀禮)

제 1 장 입교식(入教式)

입교식은 천도교인의 포덕 교화에 의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천도교의 진리를 이해하고 한 평생 천도교를 신앙하고자 교문에 들어오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의식이다. 원칙적으로 전교인(傳敎人)과 집례(執禮)가 있어 수교인(受敎人)을 교도(敎導)하여 진행한다. 도가의 자녀들도 8세가 되면 입교식을 해야 한다.

제 1 절 입교식 절차

교당이나 자택 또는 수도원 등에 식장을 정하고 수교인(受敎人)과 전교인(傳敎人), 집례(執禮) 및 참례인(參禮人)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교식을 행하며, 집례는 청수상을 중심으로 전교인과 수교인을 마주 앉히고 아래의 식순에 의하여 진행한다.

형편에 따라서 전교인이 집례를 겸할 수도 있다.

입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고

1. 주문 3회 병송

1. 서천문(誓天文) 낭독(수교인)

1. 21자 주문(3·7자 주문) 전수(傳授)

(전교인이 수교인에게)

1. 청수분작(清水分酌 ; 전교인과 수교인)

1. 상향배례(相向拜禮 ; 전교인과 수교인)

1. 심고

1. 폐식

식이 끝난 후에 집례나 전교인은 수교인에게 수도의 요령과 기초적인 교리 교사와 오관(五款) 실행 등 신앙의 절차를 설명해 준다.

※ 모든 의식에서 ‘주문 3회 병송’은 13자 주문(본주문)으로 한다.

제 2 절 입교식 심고와 서천문(誓天文) 예문

수교인 심고

① 「오늘 제가 천도교에 입교함으로써 한평생 한울님과 스승님을 모시기로 맹세하오니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② 「오늘 제가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참회하고 천도교에 입교함으로써 참된 길을 걷게 되었사오니 감사하옵니다. 이제부터 교회의 지도에 따라 한울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도성입덕, 도가완성,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도하는 진정한 교인이 되고자 하오니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 집례가 발성으로 낭독하고 수교인은 마음으로 따라서 심고한다.

참례인 심고

「오늘 ○○○ 동덕의 포덕으로 ○○○님의 입교식을 봉행하게 하여 주신 한울님과 스승님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시어 ○○○ 동덕(同德)이 이신환성(以身換性), 도성입덕 되게 하시옵고 가정적으로 무궁한 복록을 받게 하옵시고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대업을 달성하는 독신교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집례가 발성으로 낭독하고 참례인은 마음으로 따라서 심고한다.

서 천 문

제가 일찍이 한울님의 은덕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으나 오랫동안 혼탁한 세상 물결에 잠겨서 참된 길을 찾지 못하였던 바 다행하게도 ○○○ ◇◇의 지도에 의하여 오늘 천도교에 입교함으로써 참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신 은덕을 영원히 받들어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의 지도에 따라 주문·청수·시일·성미·기도 등의 오관(五款)을 성실히 실행함으로써 한평생 한울님과 스승님을 모시기로 맹세하오니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시옵소서.

포덕 년 월 일

수교인 ○ ○ ○ 심고

수교인의 서천문(誓天文)

서천문은 수교인이 직접 발성으로 낭독하며, 수교인이 낭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집례가 대독하고 수교인은 마음으로 따라 외우도록 한다.

※ 서천문은 별도로 인쇄하여 사용한다.

※ 입교식을 행한 후 전교인은 수교인에게 그날부터 21일 특별기도를 봉행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특별기도 기간에 매일 참회문을 봉독함으로써 정심수도 하도록 지도한다.

주 문(呪文)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포덕 년 월 일

전교인 ○ ○ ○

수교인 ○ ○ ○ 도하

「21자 주문(3·7자 주문)」과 양식 예문

천도교인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을 중단하였다가 참회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계속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복교식을 해야 한다.

제 1 절 복교식 절차

복교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참회문 봉독(복교인)

1. 청 수 분 작(교도인과 복교인)

1. 심 고

1. 폐 식

제 2 절 복교식 심고 예문

복교인 심고

「오늘 제가 오랫동안 신앙을 중단하였던 모든 허물을 뉘우치고 이제 다시 한울님과 스승님을 모시기로 맹세하오니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시어 저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참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3 절 참회문(懺悔文)

姓名某 生居某國 添處人倫 叩感天地蓋載之恩 荷蒙日月
성명모 생거모국 첨처인륜 고감천지개재지은 하몽일월

照臨之德 未曉歸眞之路 久沉苦海 心多忘失 今茲聖世
조림지덕 미효귀진지로 구침고해 심다망실 금자성세

道覺先生 懺悔從前之過 願隨一切之善 永侍不忘
도각선생 참회종전지과 원수일체지선 영시불망

道有心學 幾至修煉 今以吉辰 淨潔道場 至誠至願 奉請感應
도유심학 기지수련 금이길신 정결도장 지성지원 봉청감응

저는 이 나라에 태어나 살면서 욕되이 인륜에 처하여 천지의 덮고 실어 주는 은혜를 느끼며 일월이 비추어 주는 덕을 입었으나, 아직 참에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해

에 잠기어 마음에 잊고 잃음이 많더니, 이제 이 성세에 도를 선생께 깨달아 이전의 허물을 참회하고 일체의 선에 따르기를 원하여, 길이 모셔 잊지 아니하고 도를 마음공부에 두어 거의 수련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제 좋은 날에 도장을 깨끗이 하고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소원으로 받들어 청하오니 감응하옵소서.

※ 참회문은 복교인이 봉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집례나 교도인이 발성으로 봉독하고 복교인은 마음으로 따라한다.

제 2 편 교인의 수행의례(修行儀禮)

제 3 장 심 고(心告)

심고는 대신사께서 득도하신 후 교도들에게 신앙의 첫째 조목으로 가르쳐 주신 도법이다. 한울님을 높고 먼 데서 찾지 않고 내 몸에 모신 한울님을 부모님 섬기듯 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시작할 때와 끝났을 때 한울님께 정성껏 마음으로 고하는 것을 말한다.

심고에는 식고와 통상심고, 의식심고의 세 가지가 있다.

제 1 절 식 고(食告)

식고(食告)는 식사할 때의 심고를 말한다. 식사를 시작할 때와 마친 다음 반드시 심고한다.

식고(食告)의 예

① 「한울님과 스승님, 조상님 감응하옵소서. 지금 한울님의 은덕으로 아침 진지(저녁이면 저녁 진지, 점심이면 점심진지)를 받들었사오니 감사하옵니다。」(제1단)

「저는 한울님의 뜻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하루속히 이신환성(以身煥性), 도성입덕하여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대원을 달성하고자 하오니 감응하옵소서。」(제2단)

「자아시(自兒時) 있던 신병 물약자효(勿藥自效)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중차제(家中次第) 우환 없이 일년 365일을 하루같이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만사여의(萬事如意)하게 해 주시옵소서。」(제3단)

「또한 저의 집에 무궁한 복록을 주시옵고 모든 동덕들이 정심수도하여 교회의 발전을 이루게 하시옵고 동포가 길이 평안하여 민족의 통일과 무궁한 번영을 누리게 하시옵고 온 세상에 밝은 광명을 비취 세계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밖의 소원) 한울님과 스승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발원하오니 감응하옵소서. 감사히 먹겠습니다。」(제4단)

※ 먹던 음식일 때에는 고하지 않고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만 한다.

※ 식사중에도 천덕사은을 잊지 않도록 하며, 식사가 끝나면 「감사히 먹었습니다」라고 심고한다.

② 「한울님과 스승님, 조상님 감응하옵소서. 지금 조반(점심·저녁 진지)을 받들었사오니 감사하옵니다. 하루속히 도성입덕, 도가완성,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밖의 소원) 감사히 먹겠습니다。」

제 2 절 통상심고(通常心告)

통상심고라 함은 출입·기거·동정(자고, 깨고, 가고, 오고, 일하고, 성미 뜨고)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 전후에 한울님과 스승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고하고 발원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심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일할 때와 일하고 나서 심고의 예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저는 지금부터 한울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자 하오니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마치고 나서는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으로 ○○일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그 다음은 식고(食告)의 예문 제2단~제4단과 같이 한다.

잘 때와 자고 나서 심고의 예

잘 때는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저는 지금 한울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이 밤을 편안히 쉬고자 하오니 감응하옵소서」라고 한다.

자고 나서는 「한울님과 스승님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울님과 스승님 뜻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감응하옵소서」라고 하고, 그 다음은 식고 예문 제2단~제4단과 같이 한다.

어디로 갈 때와 돌아와서 심고의 예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저는 지금 한울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일로 ○○지방에 다녀오하고자 하오니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서는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으로 목적하였던 일을 뜻대로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식고 예문 제2단~제4단과 같이 한다.

성미 뜰 때 심고의 예

성미는 도가의 식구마다 한끼의 밥쌀에서 한 숟가락씩 떠서 성미기(誠米器)에 모아 두었다가 매월 교회에 바치는 정성이다. 성미를 뜰 때 식구별로 심고를 한다.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으로 아침 성미(저녁이면 저녁성미)를 뜨겠사오니 감응하옵소서.

이 한 술은 교호주 ○○○의 몫입니다. 항상 그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아들 딸 순으로 위와 같이 심고한다.

제 3 절 의식심고(儀式心告)

의식심고는 교회나 도가에서 봉행하는 일체의 의식에서 하는 심고를 말한다. 입교식, 복교식, 9시 기도(매일기도), 시일식, 기념식, 경축식, 각종 기도식, 혼례, 상례, 제례, 위령식, 탄신 및 환원 기도식, 특별기도식, 성묘 등 각종 의식을 봉행할 때마다 한울님과 스승님께 고하는 것이다.

각종 의식의 심고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곤란하므로 여기에서는 9시 기도식, 시일식, 기념식 등 의식의 심고 제1단 예문을 본보기로 한다.

※ 매일기도, 시일식, 특별수련회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심고를 발성으로 할 수 있다.

저녁 9시 기도식 심고의 예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포덕 ○○○년 ○월 ○일 저녁 9시 청수를 봉전하고 기도를 봉행하오니 감사하옵니다.」

(다음은 식고 예문 제2단~제4단과 같이 한다)

시일식 심고의 예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저는 지금 많은 동덕들과 함께 포덕 ○○○년 ○월 ○일 시일식을 봉행하오니 감사하옵니다.」

(다음은 식고 예문 제2단~제4단과 같이 한다)

기념식 심고의 예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저는 지금 천덕사은으로 많은 동덕들과 함께 ○○○기념식을 봉행하오니 감사하옵니다.」

(다음은 식고 예문 제2단~제4단에 준해서 행한다)

이 밖에 각종 의식의 심고는 그 성격에 따라 위에 예로 든 제1단의 예문에 준하여 하고, 그 다음 제2단~제4단에 준해서 활용한다.

제 4 장 오 관(五款)

오관은 주문(呪文), 청수(淸水), 시일(侍日), 성미(誠米), 기도(祈禱)의 다섯 가지 정성을 말한다.

오관은 스승님께서 제정하신 수행덕목이므로 천도교인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제 1 절 주문(呪文)

주문은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글로서 장생(長生)의 글이며 한울님의 덕을 천하에 퍼는 법문이다. 항상 독송(讀誦)함으로써 천심을 회복하여 진리를 깨닫고 천덕사은을 염념불망하여 만사여의(萬事如意)에 이르고 이신환성(以身換性), 천인합덕(天人合德), 도성입덕(道成立德)을 이루는 기도문(祈禱文)이다. 현재는 21자 주문(3·7자 주문), 강령주문(降靈呪文), 본주문(本呪文), 신사주문(神師呪文)이 사용되고 있다.

21자 주문(3·7자 주문)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21자 주문(3·7자 주문이라고도 함)은 기도할 때와 수련할 때에 묵송(默誦) 또는 현송(顯誦)으로 외운다.

강령주문(降靈呪文)

至氣今至 願爲大降
지기금지 원위대강

본주문(本呪文)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본주문은 13자 주문 또는 성주문(聖呪文)이라고도 하며, 입교식, 시일식, 경축식, 기념식, 영결식 등 각종 의식을 거행할 때 참례인 일동이 일정한 음률에 맞추어 발성으로 3회 병송한다.

신사주문(神師呪文)

神師靈氣 我心定 無窮造化 今日至
신사영기 아심정 무궁造化 금일지

이 신사주문은 매시일 저녁 9시에 봉행하는 시일 기도식 때 105회 묵송 또는 현송으로 한다.

제 2 절 청수(淸水)

제1세 교조(敎祖) 수운대신사께서 기도할 때에 청수를 봉전하셨으며, 특히 포덕 5년 3월 10일 대구장대에서 참형당하시기 직전에 청수를 봉전하고 기도하신 후 순도(殉道)하셨다.

그러므로 천도교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모든 의식을 봉행할 때 기도와 의식의 표준물로서 청수를 봉전(奉奠)하고 거룩한 정신을 마음에 새긴다.

매일 저녁 9시 기도식을 비롯하여 시일식, 기념식, 경축식, 혼례, 상례, 제례 등 천도교의 모든 의식은 반드시 청수를 봉전하고 진행한다.

가정에서 매일 저녁 9시에 청수를 봉전하고 기도를 봉행한다. 이것을 매일기도라고 하는데, 절차는 온 가족이 도장을 정결히 하고 청수상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앉아 아래의 순서로 행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9시 기도에 참석치 못하는 가족은 현재 위치에서 봉행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9시에 심고만 하고 귀가하여 따로 봉행한다.

저녁 9시 기도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21자 주문(3·7자 주문) 105회 묵송

(특별한 경우 21회 합송할 수도 있음)

1. 심 고

1. 폐 식

저녁 9시 기도식 집례 예문

- 지금부터 포덕 ○○○년 ○월 ○일 저녁 아홉시 기도식을 봉행하겠습니다.

- 청수 봉전 하겠습니다. <청수 그릇의 뚜껑을 열고>

- 심고하신 후 21자 주문(3·7자 주문) 105회 묵송(또는 21회 합송)하겠습니다.

- 일동 심고.

(참석자들이 주문 105회 마치는 것을 살펴본 후 조금 여유 있게)

- 마치는 심고 하겠습니다.

- 일동 심고. <청수기의 뚜껑을 덮고>

- 이상으로 오늘 저녁 아홉시 기도식을 마치겠습니다.

※ 폐식 후에 가족이 함께 경전봉독, 21자 주문(3·7자 주문) 21회 합송 또는 가장께서 가족들에게 간단한 교화의 말씀도 하고 천덕송 합창과 청수를 분작함으로써 더욱 화기(和氣)에 넘치는 가정 분위기를 이룰 수 있다.

※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더욱 독실한 신앙을 하기 위하여 아침 기상과 동시에 청수를 봉전하고 기도와 수련을 하고 일과를 시작 한다.

제 3 절 시 일(侍日)

시일은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울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고 감화를 받는 날이다. 천도교인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소속교구 또는 인근 교당에 모여서 집단기도와 함께 교화를 받아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고 교인간의 기화를 도모하고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힘쓴다.

집례자와 설교자 경전봉독자가 예복을 착용하고 단상에 올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일식을 봉행한다.(한복일 경우에 두루마기를 입으면 예복은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함)

특별한 사정으로 시일식에 참석치 못할 때에는 현재 위치에서 약식으로 심고하거나 실정에

따라 시일식을 봉행한다.

※ 교구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다른 시간에 봉행하거나 1부, 2부로 나누어 봉행할 수도 있다.

시일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참례인 일동)

1. 주문 3회 병송

1. 경 전 봉 독

1. 천덕송 합창

1. 설 교

1. 천덕송 합창

1. 심 고

1. 폐 식

이상의 순서로 진행하되 천덕송은 지휘자의 지휘에 의하여 합창단 또는 합주단과 함께 하면 더욱 좋다.

※ 시일식 후 21자 주문(3·7자 주문)을 21회 또는 105회 합송하거나 수련과 교리강좌를 함으로써 심화기화(心和氣和)가 되게 하고 교리연구와 신앙심 고취에 힘쓴다.

제 4 절 성 미(誠米)

성미는 천덕사은(天德師恩)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도교의 목적인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물질적 정성으로서, 교인의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 밥쌀을 낼 때마다 식구 한 사람에 한 손가락씩 생쌀로 떠서 일정한 성미기(誠米器)에 모아 두었다가 월말에 소속교구에 바친다. 성미를 뜰 때는 식구별로 손가락마다 심고한다.

이 성미를 월성(月誠)이라고도 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거나 성미를 뜰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現金)으로 대신한다.

성미를 월성(月誠)과 연성(年誠)으로 구분한다.

(연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 ‘기도’에서 설명)

이와 같이 모든 교인이 성미를 성실히 바침으로써 한울님과 스승님의 감응을 받을 수 있고 가정과 교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천도교인은 한울님과 스승님 은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달 수입의 일부를 특성금으로 소속교구에 바친다.

제 5 절 기 도(祈禱)

신앙생활 과정을 모두 기도라 할 수 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기

도는 시일(侍日) 저녁에 행하는 시일기도 및 특별기도를 말한다.

시일기도(侍日祈禱)

시일기도는 매일기도와 같이 시일 저녁 9시에 행하되 다만 정미 오홑(精米 5홑: 소두 한 되)을 청수와 함께 예탁에 받들고 21자 주문(3·7자 주문) 대신 신사주문(神師呪文) 105회를 현송 또는 묵송하며, 특히 천덕사은(天德師恩)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한다.

예탁에 올렸던 정미 5홑은 그 해 1월 첫 시일부터 6월 말 시일까지와 7월 첫 시일부터 12월 말 시일까지 모아서 상·하반기(上下半期) 두 차례 교회에 상납한다. 이것을 기도미(祈禱米) 또는 연성(年誠)이라고 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시일기도식 집례 예문

- 지금부터 포덕 ○○○년 ○월 ○일 시일기도식을 봉행하겠습니다.

- 청수와 기도미를 봉전하겠습니다

<청수 그릇과 기도미 그릇의 뚜껑을 열고>

- 심고하신 후 신사주문 105회 묵송(또는 21회 합송) 하겠습니다.

- 일동 심고.

(참석자들이 주문 105회 마치는 것을 살펴본 후 조금 여유 있게)

- 폐식 심고하겠습니다.

- 일동 심고.

<청수 그릇과 기도미 그릇의 뚜껑을 덮고>

- 이상으로 오늘 시일기도식을 마치겠습니다.

특별기도(特別祈禱)

천도교의 수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기도와 수련이다.

특별기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7일, 21일, 49일, 105일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택 또는 특별 장소(교당, 수도원, 기타)에서 도장(道場)을 정결히 하고 봉행한다. 시간은 아침 5시에 봉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다.

중앙총부의 계획에 따라 교회 전체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또한 교구와 단체, 개인이나 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봉행하기도 한다.

특별기도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목적한 바를 기원함)

1. 21자 주문(3·7자 주문)

(105회, 1050회, 3150회를 묵송 또는 현송)

1. 경 전 봉 독

1. 심 고

1. 폐 식

심고는 통상심고에 준하되 그 목적인 바를 심고문으로 작성하여 발원한다.

특별기도 기간에는 금기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금기 사항 : 술, 담배 또는 어육(魚肉) 등)

제 5 장 수도(修道)와 실행요령(實行要領)

천도교인은 항상 한울님과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 도성입덕, 도가완성을 추구하고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심정기(守心正氣), 성·경·신(誠敬信), 천지부모(天地父母)에 대한 효성, 이신환성(以身換性) 등을 수도의 요체(要諦)로 하고 과거의 허물을 참회(懺悔)하면서 경전 공부와 수련(修鍊)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통일(信仰統一)과 규모일치(規模一致)를 위해 힘써야 하며, 오관(五款)을 성실히 실행하면서 생활 속에서 항상 사계명, 여덟 가지 수칙(守則), 팔절(八節), 십무천(十毋天), 임사실천십개조(臨事實踐十個條), 내수도문과 내칙 등을 실천궁행해야 한다.

제 1 절 경전봉독(經典奉讀)

교인은 항상 수련과 함께 경전 공부에 힘써서 스승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용담유사(龍潭遺詞)를 비롯해서 스승님의 범설을 숙독상미(熟讀詳味)해야 하며, 언제나 스승님을 대하듯 경전을 가까이 하여 진리를 연구하고 정심수도(正心修道)해야 한다.

제 2 절 수련(修鍊)

수련은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이신환성(以身換性), 도성입덕(道成立德)을 위해 자기의 마음과 성품을 닦는 수도(修道) 과정이다.

수련은 일상수련(보통수련), 특별수련, 독공(篤工)수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일상수련은 특별한 절차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주문을 외우는 것을 말한다.

나. 특별수련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택이나 교당, 수도원 등 특별 장소에서 7일, 21일, 49일, 105일 등 특별기도를 봉행하면서 술, 담배 등 금기 사항과 수칙을 정하고 시간표에 따라 수련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독공수련은 특별수련에 준해서 하되 목적 달성을 기원하면서 오로지 수련에 전념하는 공부이다.

단체로 기도와 특별수련을 겸할 때에는 집례자에 의해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실정에 따라 식순을 조절할 수 있다)

기도, 특별수련 식순

1. 청 수 봉 전(생략할 수도 있음)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참회문 봉독(생략할 수도 있음)

1. 송 주(誦呪 ; 현송과 묵송)

1. 경 전 봉 독

1. 천덕송 합창

1. 사계명 봉독

1. 심 고

모든 교인은 1년에 1회 이상 수도원에서 실시하는 특별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계명 봉독’ 순서는 ‘여덟 가지 수칙’ ‘십무천’ ‘임사실천십개조’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모든 교구에서는 매주 목요일 또는 적당한 날을 정해 놓고 교당이나 특정 장소에 모여 공동으로 수련과 경전 공부를 하도록 한다.

제 3 절 사계명(四誠命)

번복지심(翻覆之心) 두게 되면 이는 역시 역리자(逆理者)요

물욕교폐(物慾交蔽) 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루자(鄙陋者)요

헛말로 유인(誘引)하면 이는 역시 혹세자(惑世者)요

안으로 불량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 기천자(欺天者)라

제 4 절 여덟 가지 수칙(守則)

일번치제 영시지중맹 (一番致祭 永侍之重盟)

만혹과거 수성지고야 (萬惑罷去 守誠之故也)

의관정제 군자지행 (衣冠正齊 君子之行)

노식수후 천부지사 (路食手後 賤夫之事)

도가불식 일사족지악육 (道家不食 一四足之惡肉)

양신소해 우한천지급좌 (陽身所害 又寒泉之急坐)

유부녀지방색 국대전지소금 (有夫女之防塞 國大典之所禁)

와고성지송주 아성도지태만 (臥高聲之誦呪 我誠道之太慢)

한번 입도식을 지내는 것은 한울님을 길이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요

모든 의심을 깨쳐 버리는 것은 정성을 지키는 까닭이니라

의관을 바로 갖추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요

길에서 먹으며 뒷집 지는 것은 천한 사람의 버릇이니라
도가에서 먹지 아니할 것은 한 가지 네 발 짐승의 나쁜 고기요
몸에 해로운 것은 또한 찬물에 갑자기 앉는 것이니라
유부녀를 막는 것은 나라 법으로도 금하는 것이요
누워서 큰 소리로 주문 외우는 것은 나의 정성된 도에 태만함이니라

제 5 절 십무천(十毋天)

1. 무 기천(毋 欺天)하라(한울님을 속이지 말라)
2. 무 만천(毋 慢天)하라(한울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3. 무 상천(毋 傷天)하라(한울님을 상하게 하지 말라)
4. 무 난천(毋 亂天)하라(한울님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5. 무 요천(毋 夭天)하라(한울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6. 무 오천(毋 汚天)하라(한울님을 더럽히지 말라)
7. 무 뇌천(毋 天)하라(한울님을 주리게 하지 말라)
8. 무 괴천(毋 壞天)하라(한울님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9. 무 염천(毋 厭天)하라(한울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
10. 무 굴천(毋 屈天)하라(한울님을 굴하게 하지 말라)

제 6 절 임사실천십개조(臨事實踐十個條)

1. 명윤리(明倫理)하라(윤리를 밝히라)
2. 수신(守信義)하라(신의를 지키라)
3. 근업무(勤業務)하라(업무에 부지런하라)
4. 임사지공(臨事至公)하라(일에 임하여 지극히 공정하라)
5. 빈궁상휼(貧窮相恤)하라(빈궁한 사람을 서로 생각하라)
6. 남녀엄별(男女嚴別)하라(남녀를 엄하게 분별하라)
7. 중예법(重禮法)하라(예법을 중히 여기라)
8. 정연원(正淵源)하라(연원을 바르게 하라)
9. 강진리(講眞理)하라(진리를 익히고 연구하라)
10. 금효잡(禁滄雜)하라(어지럽고 복잡한 것을 금하라)

제 6 장 도호수여식(道號授與式)과 독공(篤工)

제 1 절 도호 수여 절차

입교 후 일정 기간 중단없이 오관(五款)을 실행하고 경전(經典) 공부와 수련을 통해 한울님 모심을 깨닫고, 수도요령과 기초적인 교리 교사를 이해하고 교회의 모든 규범을 잘 지키면

교회로부터 도호 [남성은 암호(菴號), 여성은 당호(堂號)] 를 받게 된다.

특히 도호수여식은 다시 한번 스승님의 포덕으로 무극대도에 참여하게 된 기쁨과 긍지를 갖고 스승님의 심법(心法)을 바르게 이어받아 성숙된 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중맹(重盟)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도호수여식이 끝나면 더욱 깊은 독공수련(篤工修煉)으로 도성입덕과 포덕(布德)에 힘써야 한다.

제 2 절 도호수여식

도호수여식은 교당이나 자택에서 도장을 정결히 하고 경건하게 진행한다.

도호 받는 이와 전교인과 집례(執禮)와 참례인(參禮人)이 한자리에 모여 행하며, 입교식 때와 같이 집례는 청수상을 중심으로 전교인과 도호 받는 이를 마주 앉히고 아래의 식순에 의하여 식을 진행한다.

도호 수여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경 전 봉 독(권도문, 도호 받는 이)

1. 도호 수여(전교인이 도호 받는 이에게)

1. 청 수 분 작(전교인과 도호 받는 이)

1. 상 향 배 례(전교인과 도호 받는 이)

1. 심 고

1. 폐 식

※ 도호 받는 이는 먼저 목욕재계와 기도를 하고 식에 임한다.

※ 전교인이 없을 때에는 교도인 또는 원직 대표가 수여한다.

제 3 절 도호수여식 때의 심고 예문

도호 받는 이의 심고

쫄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오늘 제가 한울님과 스승님의 심법을 받고 도호(道號)를 받음으로써 참다운 도인(道人)의 생활을 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니다.

이제부터 스승님의 포덕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심법(心法)에 어긋나지 않게 정심수도(正心修道)하여 이신환성으로 정신을 개벽하고 도성입덕, 도가완성,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오니 감응하여 주시옵소서.췌

참례인 심고

쫄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오늘 ○○○ 동덕의 도호수여식을 봉행하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 동덕으로 하여금 더욱 독실한 신앙과 정심수도로 이신환성, 도성입덕, 도가완성을 이루고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감응하여 주시옵소서.궤

※ 집례가 발성으로 낭독하고 다른 동덕들은 마음으로 따라서 심고한다.

제 4 절 특별기도와 독공(篤工)

도호수여식을 마친 교인은 초보적 신앙생활에서 한층 성숙된 도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하고 더욱 독실한 신앙과 수도로서 정진하여야 한다.

우선 기간을 정하고 특별기도와 독공(篤工)수련을 하여 한울님과 스승님의 특별한 감응을 받아 도력을 기르고 진리를 연구하며 자기 직분 수행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변함없는 신앙과 정심수도로 도성입덕, 도가완성을 이루고 대도(大道)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덕과 교회 사업에 적극 봉사하여야 한다.

제 7 장 포 덕(布德)

포덕은 한울님의 덕을 세상에 널리 퍼는 수행 과정이며 천도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교 활동을 말한다.

포덕은 혼탁한 세상 물결에 휩쓸려 방황하는 창생을 건지는 길이며 천덕사은(天德師恩)에 보답하는 길이며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거룩한 사업이다.

천도교인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봉사(奉仕)해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시천주(侍天主) 진리를 알고 참된 생활을 하도록 포덕 교화에 힘써야 한다.

천도교는 모든 사람들이 한울사람이 되게 하고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포덕은 천도교인의 천직(天職)이 아닐 수 없다. 포덕천하는 한울님과 스승님의 간절한 뜻이요 우리 교의 목적이다.

따라서 천도교인은 포덕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하며, 특히 도호를 받은 독신교인과 교역자는 항상 포덕 교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포덕은 성경신을 체행하면서 가정포덕, 친척, 친지, 이웃 포덕 그리고 말과 글을 통한 포덕, 물심양면의 봉사 활동을 통한 포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3 편 기념식 및 각종 행사 의례

제 8 장 기념식(紀念式)

천도교에는 7대 기념일이 있다. 대신사의 득도일과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상사의 승통일

을 4대 기념일로 정하여이를 득도 및 승통 기념일이라 한다. 그리고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한 날을 현도기념일, 동학혁명을 기포한 날을 동학혁명기념일,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날을 3·1절로 정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거행한다.

제 1 절 득도(得道) 및 승통 기념(承統紀念)

천일기념(天日紀念)

포덕 1년 4월 5일은 대신사께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받은 날이다. 이 날을 ‘천일기념일’ 이라고 하며, 기념식을 봉행한다.

지일기념(地日紀念)

포덕 4년 8월 14일은 해월신사께서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날이다. 이 날을 ‘지일기념일’ 이라고 하며 기념식을 봉행한다.

인일기념(人日紀念)

포덕 38년 12월 24일은 의암성사께서 해월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날이다. 이 날을 ‘인일기념일’ 이라고 하며 기념식을 봉행한다.

도일기념(道日紀念)

포덕 49년 1월 18일은 춘암상사께서 의암성사로부터 대도주직을 승통한 날이다. 이 날을 ‘도일기념일’ 이라고 하며 기념식을 봉행한다.

천일기념식 식순

1. 개 식(주악 또는 합창단)
1. 청 수 봉 진
1. 심 고(참례인 일동)
1. 주문 3회 병송
1. 경 진 봉 독
1. 기념송 합창
1. 기 념 사
1. 축 사(일반 내빈 없으면 생략)
1. 천덕송 합창(천일기념가)
1. 심 고
1. 폐 식(주악 또는 합창단)

지일, 인일, 도일기념은 모두 천일기념식 식순에 준한다.

제 2 절 현도(顯道) 및 혁명 기념(革命紀念)

현도기념(顯道紀念) ; 포덕의 날

포덕 46년 12월 1일은 의암성사께서 동학을 ‘천도교’ 로 세계에 선포한 날로서 이 날을

‘현도기념일’이라고 하며, 또한 포덕 67년부터는 이 날을 ‘포덕의 날’로 정하고 포덕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식순은 위의 기념식에 준한다.

3·1 절 기념식(三·一節 紀念式)

삼일운동은 포덕 60년 기미(己未) 3월 1일에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을 말하는데 3·1절은 국가 경축일인 동시에 천도교에서는 7대 기념일의 하나로 정하고 이 날을 기념한다.

3·1 절 기념식 식순

1. 개 식(주악 또는 합창단)
1. 국 민 의 례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독립선언서 낭독
1. 천덕송 합창
1. 기 념 사
1. 축 사(생략할 수 있음)
1. 포 상(포상자 없으면 생략)
1. 3·1절 노래 합창
1. 만 세 삼 창
1. 심 고
1. 폐 식(주악 또는 합창단)

동학혁명기념식(東學革命紀念式)

포덕 35년 3월 21일은 동학혁명군이 제폭구민(除暴救民)·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봉기한 날로서 매년 이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 식순은 3·1절 기념식에 준한다. 다만 광독립선언서책 대신 광폐정개혁 12개조책로, 광3·1절 노래책 대신 동학혁명과 관련된 내용의 송가로 바꾸어서 진행한다.

제 9 장 탄신(誕辰) 및 환원 기도식(還元祈禱式)

제 1 절 탄신기도식(誕辰祈禱式)

탄신기도식은 대신사를 비롯하여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상사의 탄신을 경축하는 기도식이다. 이 날은 전체 교인이 자택에서 기도식을 행한다. 그 날짜는 아래와 같다.

대신사 탄신일 (10월 28일 ; 포덕 전 36년)

해월신사 탄신일 (3월 21일 ; 포덕 전 33년)

의암성사 탄신일 (4월 8일 ; 포덕 2년)

춘암상사 탄신일 (2월 1일 ; 포덕 전 5년)

탄신기도식은 재가기도(在家祈禱)로 하되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래와 같이 봉행한다.(이 날 매일기도는 따로 봉행하지 않는다.)

탄신기도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경 전 봉 독

1. 천덕송 합창

1. 심 고

1. 폐 식

제 2 절 순도(殉道) 및 환원 기도식(還元祈禱式)

순도 및 환원 기도식은 대신사 순도를 위시하여 해월신사 순도, 의암성사 환원, 춘암상사 환원을 추모하는 기도식이며 그 날짜는 아래와 같다.

대신사 순도일 (3월 10일 ; 포덕 5년)

해월신사 순도일 (6월 2일 ; 포덕 39년)

의암성사 환원일 (5월 19일 ; 포덕 63년)

춘암상사 환원일 (4월 3일 ; 포덕 81년)

이 순도 및 환원 기도식도 재가기도로 저녁 9시에 자택에서 봉행한다.(이 날 매일기도는 따로 봉행하지 않는다.)

순도 및 환원 기도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경 전 봉 독(성령출세설)

1. 천덕송 합창(환원기도가)

1. 심 고

1. 폐 식

제 10 장 사은기도식(謝恩祈禱式)

제 1 절 감사기도(感謝祈禱) ; 가정적

사은기도는 도가에서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학(入學), 취직(就職), 승진(昇進) 같은 경사가 있을 때와 교회적으로 훈상(勳賞), 표창(表彰) 또는 각종 도첩(道帖)을 받았을 때 가정에서 가족 또는 교우들이 모여 다음과 같이 감사기도식을 행한다.

감사기도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청수상에 상패나 도첩을 청수와 같이 봉전한다.)

1. 심 고

(받은 훈상의 경위를 고하고 감사함을 고함.)

1. 주문 3회 병송

1. 천덕송 합창(자유 선택)

1. 심 고

1. 폐 식

제 2 절 봉고기도(奉告祈禱) ; 교회적

봉고식은 커다란 경사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한울님과 스승님께 그 사실을 봉고하는 의식이다. 봉고식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거행한다.

봉고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봉고문 낭독(그 사실의 내용대로)

1. 천덕송 합창(자유 선택)

1. 심 고

1. 폐 식

제 3 절 봉고문(奉告文) 예문

봉고문(奉告文)

①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저희들 전체 교인들은 지금 삼가 교회의 기쁜 사실을 한울님과 스승님께 봉고하나이다. 교회는 그 동안 저희 후학들의 불찰로 인하여 대신사님께서 탄생하시고 득도하신 구미용담이 우리 손으로 가꿀 수 없는 여건에 있음을 항상 마음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바 천사님의 감응으로 이제 우리의 재단으로 편입되었고, 또한 구미산과 용담정 일대가 성역으로 개발되게 되었사오니 우리 전체 교인에게는 이에서 더한 기쁨과 영광이 있을 수 없사옵기에 뜻깊은 이 사실을 한울님과 스승님 앞에 봉고하오니,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시어 이 성역화 사업이 저희들의 정성과 힘으로 이루어지도록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포덕 년 월 일

○ ○ ○ 심고

②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저희들은 오늘 인일기념 100주년을 맞이하여 삼가 교회의 기쁜 사실을 한울님과 스승님 앞에 봉고하옵니다. 일찍이 대신사께서 “산하대운이 진귀 차도한다” 고 말씀하셨고, 해월신사께서는 “일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손바닥에 시천주 주문을 써 달라고 할 것이며 포덕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하게 된다” 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하신 후 세계종교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의암성사 승통 100주년 인일기념을 맞이하면서 오랫동안 어둠에 처해 있던 천도를 세상에 밝게 드러내신 의암성사의 대고천하 정신을 계승하고자 무극대도를 온 천하에 알릴 수 있는 천도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교회 내의 여러 젊은 동덕들이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정성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작업에 임했음을 함께 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천도교를 쉽게 알고 연구하게 되었음을 삼가 봉고하오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내천 진리가 널리 알려져 하루속히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포덕 년 월 일

○ ○ ○ 심고

제 11 장 위령식(慰靈式)

대신사 순도일인 매년 3월 10일을 기하여 대신사님을 비롯한 순도선열 합동위령식을 봉행한다.

※ 각 교구에서는 실정에 따라 교구 내의 일반 환원 교인 합동위령식을 별도로 거행할 수 있다.

제 1 절 대신사 및 순도선열 합동위령식

순도선열 합동위령식은 대신사님을 비롯한 스승님과 교회의 역사에서 순도 순국한 선열들의 성령을 합동으로 추모하는 의식으로서 매년 3월 10일에 봉행한다. 교당이나 공공장소에서

교직자·유가족·일반 교인들이 참례하여 정중하게 식을 봉행한다.

대신사 및 순도선열 합동위령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분 향(집례)
1. 심 고(집례 발성으로)
1. 주문 3회 병송
1. 경 전 봉 독(성령출세설)
1. 위령문 낭독
1. 천덕송 합창(대신사 환원기도가)
1. 추 념 사
1. 천덕송 합창(위령송)
1. 분 향(유가족·교회 대표)
1. 심 고
1. 폐 식

※ 분향시 유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 대표만 하고 폐식 후 차례로 분향한다.

※ 각 교구의 환원 교인 합동위령식은 위의 식순에 준하되 적절히 가감해서 행한다.

제 2 절 위령식 심고 예문

「오늘 저희 전체 교인들은 대신사님의 순도일을 기하여 옷깃을 여미고 대신사·해월신사를 비롯해서 과거 백여 년 동안에 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순도 순국하신 선열들의 위령식을 합동으로 봉행하오니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살피시옵소서.

저희들은 선열들의 유지를 계승하여 수도와 포덕교화에 모든 힘을 기울여 포덕천하·광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 건설의 대원을 성취할 것을 맹세하오니 한울님과 스승님의 감응으로 선열들의 성령이 저희들 심령과 융합하여 장생하시면서 항상 저희들의 앞길을 소소히 밝혀 주시옵소서.」

제 3 절 위령문 예문

① 「오늘 3월 10일은 대신사께서 대구장대에서 참형을 당하신 순도일입니다. 이 날을 기하여 저희 후생들은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대신사님과 대신사님의 뒤를 따라서 순도하신 스승님들과 선열들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식을 봉행하오니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아,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선열들께서는 대신사께서 창명하신 무극대도를 온 세상에 퍼서 이 땅 위에 살기 좋은 새 세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수도와 포덕에 힘쓰고 온갖 불의와 싸우시다가 그만 때가 이롭지 못하고 운이 또한 순치 못하여 그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참형, 교형, 전사, 옥사, 익사, 장사, 총살 등 갖가지 형태로 참혹하게 순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만 한 몸과 한 집을 위하여 살다가 자기집 안방에서 편안히 죽어가는 것도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거늘, 선열들께서는 동학 천도교가 모든 사람의 진

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며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무극대도임을 확신하고 도탄 중에 헤매는 창생을 건지기 위한 거룩한 사업을 하시다가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정신은 만고를 통하여 뜻있는 사람들의 옷깃을 적시게 하거늘 하물며 직접 선열들의 유지와 유업을 이어받은 저희 후생들이야 그 추모의 심정을 무엇으로써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굽어 살피옵소서. 선열들의 그 거룩한 정신과 불멸의 공덕은 교회와 함께 그리고 저희 후생들의 심령 가운데서 영원히 장생하시면서 교회와 저희들의 앞길을 소소히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교회는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스승님 말씀대로 ‘산하대운이 진귀차도’ 하는 시운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은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는 이유는 온 세상 사람이 한울님의 덕을 망각하고 각자위심(各自爲心)하여 불순천리, 불고천명하는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신개벽과 인간성 회복의 길을 밝히는 시천주 진리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 줄 믿습니다.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한울님께서 사람을 낼 때에 육신을 마련한 것은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울님의 참뜻을 배반하고 불의만 감행하기 때문에 수운대신사께서는 한울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새 도법을 창명하시고 또한 그 진리를 펴시다가 순도하셨고, 선열들은 대신사의 가르침을 받들고 불의에 굴하지 않고 창생을 위해 일하시다가 순도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모든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선열들께서 천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도를 닦고 불의와 싸우신 그 정신과 뜻을 또한 저희들은 받들어서 수도와 포덕에 더욱 힘쓰고 기어이 지상천국 건설의 대원을 달성하고자 할 것을 선열들의 영전에 맹세하오니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굽어 살피시옵고 명우가 있어지이다.책

포덕 ○○○년 3월 10일

천도교중앙총부

② 「한울님 감응하시옵고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오늘은 3월 10일, 수운대신사께서 순도하신 지 ○○○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후천오만년의 새로운 광명의 시대를 열어 놓으신 수운대신사께서 선천의 낡은 인습에 사로잡힌 지각없는 무리들에 의하여 좌도난정이라는 억울한 죄명으로 대구장대에서 참형을 당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하여 대신사님의 뒤를 따라서 혹독한 탄압과 도산검수 속에서도 대도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의와 싸우시다가 장렬하게 순도하신 백만 선열들을 함께 추모하는 합동위령식을 봉행하오니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무극대도가 이 땅에 뿌리내리는 데 왜 이다지도 많은 선열들의 피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선열들의 성령 앞에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한없는 추모의 정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선열들의 그 숭고한 뜻과 불멸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대도가 날로 발전하여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산하대운이 진귀차도하는 시운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선열들의 순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울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각자위심으로 살면서 한울을 공경치 아니하고 한울의 이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도덕질서가 무너지고 싸움과 질병과 가난과 혼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모든 생명들이 삶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사람들은 살아가는 의미와 방향을 상실한 채 방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내천 진리를 갈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 인내천 진리는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요 인류구원의 햇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선

열들의 위대하신 순도와 덕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에 이르기를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서 만기만상의 이치를 모두 한몸에 갖추었으니 사람의 성령은 대우주의 영성을 순연히 타고난 것이며…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표현되고 선사의 정령은 후학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영원히 이 세상에 나타나 활동함이 있다” 하였으니, 선열들이 남겨 놓으신 그 불멸의 거룩한 공덕은 교회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며 그 성령은 저희 후생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장생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후생들은 한울님의 뜻을 이루고자 불의와 싸우신 그 거룩한 정신을 받들어 기어 이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의 대원을 달성할 것을 선열들의 영전에 맹세하오니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굽어살피시고 명우가 있어지이다.궐

포덕 ○○○년 3월 10일

천도교중앙총부

제 12 장 신년합동배하식(新年合同拜賀式)

새해를 맞아 초하룻날 오전 11시에 교당에 모여 공동으로 새해를 축복하는 합동배하식(合同拜賀式)을 거행한다.

신년합동배하식 식순

1. 개 식
1. 청수 봉진
1. 심고(일동 축복기원)
1. 주문 3회 병송
1. 신년사(교령 또는 교회 대표자)
1. 합동배례(참례인 일동)
1. 천덕송 합창
1. 만세삼창
1. 심고
1. 폐식

식순 중 신년사 낭독까지는 좌석에 앉은 채 진행하고 ‘합동배례’ 때는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원형(圓形)으로 둘러선다. 집례자의 구령에 의하여 서로 배례하고 ‘천덕송 합창’ 과 ‘만세삼창’ 을 마친 후 자기 자리에 돌아가 앉는다.

제 13 장 참례식(參禮式)

참례(參禮)라 함은 스승님의 묘소나 동상, 또는 선열들의 위령탑 등을 참례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집단으로 참례단을 조직하여 행하는 참례와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집단적으로 참례할 때에는 인솔자의 지도로 묘소 앞이나 동상 또는 명소 앞에 정렬하여 아래의 절차로 진행한다.

참례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실정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음)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배 례(성령을 생각하며 경의를 포함)
1. 심 고
1. 폐 식

※ 실정에 따라 분향한다.

※ 참례식 전 또는 후에 안내자는 그 성역의 유래와 사실을 설명하여 참례자로 하여금 추모의 심정을 느끼게 한다.

※ 성묘 등 일체의 참례 행사는 위의 식순에 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추모사를 할 수도 있다.

제 14 장 제막식(除幕式)

제 1 절 동상제막식(銅像除幕式)

스승님들의 동상이나 또는 교회에 공적이 많은 분의 동상을 건립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막식을 거행한다.

동상제막식 식순

1. 개 식
1. 국 민 의 례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제 막(각계 대표)
1. 경 과 보 고(주최자)
1. 약 력 보 고
1. 동상문 낭독(주최측 대표)
1. 식 사(건립위원장)
1. 추 념 사
1. 축 사
1. 포 상

1. 축가 및 천덕송 합창

1. 유족 대표 인사

1. 심 고

1. 폐 식

※ 실정에 따라 분향한다.

제 2 절 기념비·유허비·묘비 제막식

스승님들의 묘비(墓碑) 또는 기념비(紀念碑)나 유허비(遺墟碑) 또는 교회의 선열들의 묘비를 건립하고 제막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식을 거행한다.

제막식 식순

1. 개 식(주악 또는 합창)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제 막(교회 대표자 및 원로 인사)

1. 경 과 보 고

1. 약 력 보 고

1. 묘비문 낭독

1. 식 사(式辭)

1. 추 념 사

1. 축 사

1. 포 상

1. 천덕송 합창

1. 유족 대표 인사

1. 심 고

1. 폐 식

※ 실정에 따라 분향한다.

※ 추념사, 조사, 위령문 등은 대상물을 향한 자세로 낭독한다.

※ 행사의 특성과 규모를 보아 국민의례, 축사 등 절차를 증감할 수 있다.

제 15 장 경축식(慶祝式)

경축식에는 교당 건축의 기공식 및 준공식 또는 상량식, 현판식이 있고, 학위 취득, 개강식, 졸업식, 주택 입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편의상 공사기공식, 교당준공식, 현판식, 개강식, 졸업식, 도침·훈장·표창패 수여식 등 교회적으로 행하는 예만을 추려서 본보기로

예시한다. 그 밖의 의식은 이에 준해서 적절히 식순을 정하도록 한다.

제 1 절 공사기공식(工事起工式)

교당 건축이나 혹은 교회의 큰 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기공식을 행한다.

기공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식 사(式辭 ; 주최자)
1. 봉고문 낭독(교당 건축 봉고문 참조)
1. 기 공(起工)
1. 축 사(내빈)
1. 천덕송 합창
1. 심 고
1. 폐 식

제 2 절 교당준공식(教堂竣工式)

교당준공식 식순

1. 개 식(주악 또는 합창)
1. 테이프 절단(생략할 수 있음)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경 과 보 고
1. 식 사
1. 봉고문 낭독
1. 포 상
1. 축 사
1. 천덕송 합창
1. 심 고
1. 폐 식

※ 상량식도 기공식에 준하되 기공 대신에 상량으로 한다.

※ 교당입주식은 교당준공식에 준한다.

교당 건축 봉고문(예문)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저희 ○○교구 모든 교인들은 삼가 교회의 기쁜 사실을 한울님과 스승님 앞에 봉고하옵니다.

저희들은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으로 여러 동덕들의 정성을 모아 교당을 신축(이전)하고 입주하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는 선천(先天)이 물러가고 후천의 새 세계가 열리는 전환기에 처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혼탁한 세상 물결에 휩쓸려 방황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내천(人乃天) 진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민족과 인류 앞에 제기되어 있는 전쟁과 질병과 경제 위기 극복, 그리고 인간성 회복, 평화 통일, 환경 보전, 종교 화합 등 모든 과제들을 원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천도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산하의 큰 운수가 다 이 도에 돌아오는 이 때에 여러 동덕들의 정성을 모아 이렇게 교당을 건축하였으므로 이 기쁨을 한울님과 스승님께 삼가 아뢰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한층 수도와 포덕에 힘을 기울여 한마음 한뜻으로 동귀일체하여 도성입덕·도가완성·포덕천하·광제장생·보국안민의 대원을 성취하겠습니다오니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포덕 ○○○년 ○월 ○일
천도교 ○○교구 ○○○ 심고

제 3 절 교당현판식(敎堂懸板式)

교당현판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생략할 수도 있음)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식 사(주최자)
1. 현 판(교회 대표, 각 기관장)
1. 천덕송 합창(생략할 수도 있음)
1. 심 고
1. 폐 식

※ 수도원이나 학교, 기타 건물 현판식도 이에 준한다.

제 4 절 개강식(開講式) 및 졸업식(卒業式)

개강식 식순

1. 개 식(주악 및 합창단)
1. 국 민 의 례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식 사(중학대학원장·주최자)
1. 격 려 사(교회 대표자)
1. 축 사
1. 선 서(수강생)

1. 학칙 및 지시 사항(주최자 또는 교무처장)

1. 천덕송 합창

1. 심 고

1. 폐 식

종학대학원이나 각 교구별 지역별 강도회(講道會), 또는 장기, 단기 연수회 등을 열고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졸업식 또는 수료식을 행한다.

졸업식 또는 수료식 식순

1. 개 식(주악 및 합창단)

1. 국 민 의 례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식 사(종학대학원장·주최자)

1. 학 사 보 고(교무처장)

1. 졸업장, 수료증 수여

1. 상 장 수 여

1. 답 사(졸업생 중에서)

1. 격 려 사(교회 대표, 내빈)

1. 축 사

1. 기념품 증정

1. 천덕송 합창

1. 심 고

1. 폐 식

※ 실정에 따라 식순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절 도첩(道帖) 및 훈장·표창패 수여식

도첩 및 훈장(勳章)·표창패(表彰牌) 수여식(授與式)은 다음과 같이 거행한다.

도첩 및 훈장·표창패 수여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도첩 및 훈장·표창패 수여

1. 천덕송 합창

1. 심 고

1. 폐 식

제 4 편 일반 경조사(慶弔事) 의례

제 16 장 생일축하식(生日祝賀式)

교인들의 생일을 맞이하면 가정에서 적당한 시간에 다음과 같이 축하식을 행한다.

생일축하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축하의 노래
1. 심 고
1. 폐 식

※ 실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어린이는 태어난 지 105일째 되는 날 가정에서 위의 순서로 축하식을 행한다.

제 17 장 성년식(成年式)

그 해에 성년(만18세)이 되는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5월에 각 교구에서 합동으로 성년식을 행한다. 교회에서는 사회에서 행사하는 날 직전의 시일(侍日)식 후에 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사회에서는 매년 5월 세 번째 월요일에 행하고 있음)

성년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경 전 봉 독
1. 격려사
1. 축 사
1. 답 사
1. 천덕송 합창
1. 심 고
1. 폐 식

제 18 장 혼례(婚禮)

제 1 절 약혼식(約婚式)

약혼식은 약혼 당사자(신남·신녀)와 양가 친척, 교우가 모여 교당이나 당사자 자택에서 아래와 같이 봉행한다.

약혼식 식순

1. 개 식
1. 청수 봉 전
1. 심 고
1. 혼인서약(약혼 당사자가 예문대로 낭독)
1. 약혼서 낭독 및 교환
1. 예물 교환(당사자 상호간)
1. 양가 친척 인사 교환
1. 심 고
1. 폐 식

신남·신녀의 심고

「오늘 저희 두 사람은 한울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부부의 의를 맺기 위하여 양가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약혼식을 올리오니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시어 저희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례인 심고

「오늘 신남 ○○○군과 신녀 ○○○양의 약혼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행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감응하여 주옵소서.」

혼인서약 예문

약혼서 예문

약혼서는 2장 작성하여 교환한다. 단, 약혼인 난에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절 혼인식(婚姻式)

혼인식은 약혼이 성립된 후 때와 장소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행한다.

약 혼 서							
	부	○○○					
월	모	○○○	의	○남	○○○	연령	세
	일	생					년
	부	○○○					
월	모	○○○	의	○녀	○○○	연령	세
	일	생					년
우리 두 사람은 한울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의 은덕으로 오늘 부부의 의를 맺고자 약혼합니다.							
포덕 ○○○년 ○월 ○일							
약 혼 인 ○ ○ ○ 인							
약 혼 인 ○ ○ ○ 인							

1. 식장(式場)은 교당, 혼인식장 또는 자택, 기타 적당한 장소로 한다.
1. 신랑, 신부의 예복(禮服)은 원칙적으로 당일에 입기 위하여 마련한 복장(한복 또는 평상복)을 사용한다.
1. 주례(主禮)는 반드시 교회 예복을 착용한다.
1. 집례(執禮)는 예복을 입지 않아도 무방하다.
1. 후행인(後行人) 또는 인도인(引導人)은 양가 부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친척, 친지 중에서 모범 부부를 선정해도 무방하다.
1. 입장(入場)은 신랑·신부가 동시에 하고, 그 뒤에 양가 부모 또는 다른 친지나 친척 부부가 예탁 앞까지 후행한다. 퇴장시에도 후행인이 따른다.
1. 신랑·신부의 위치는 예탁을 향해서 신랑은 왼쪽, 신부는 오른쪽에 선다.

혼 인 서 약	
저희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평생 부화부순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일가친척과 화목하고 천도교를 독실히 신봉하면서 국가 사회에 봉사하며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포덕 ○○○년 ○월 ○일	
신남 ○ ○ ○	
신녀 ○ ○ ○ 심고	

혼인식 식순

- 1. 개 식
- 1. 주례 등단
- 1. 화축점화
- 1. 청수봉전
- 1. 신랑 신부 입장
- 1. 신랑 신부 상견례(相見禮)
- 1. 고천문(告天文) 낭독
 - 1. 신랑 신부 청수 분작(清水分酌) 및 심고
 - (주례가 발성으로 하고 신랑 신부는 마음으로 따라한다)
- 1. 주례사(主禮辭)
- 1. 축복기원 심고(내빈 일동)
- 1. 천덕송 합창(생략할 수도 있음)
- 1. 신랑 신부 내빈께 경례
- 1. 양가 대표 인사
- 1. 신랑 신부 행진
- 1. 폐 식

고 천 문(告天文)

신 랑 ○ ○ ○ 군
신 부 ○ ○ ○ 양

이 두 사람은 한울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의 은덕으로 오늘 부부의 의를 맺는 혼례식을 올리오니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시어 이들로 하여금 정성·공경·믿음으로 부화부순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덕 ○○○년 ○월 ○일
주례 ○○○ 심고

고천문의 예문

신랑 신부의 심고

쫓오늘 저희 두 사람은 한울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의 은덕으로 부부의 의를 맺는 혼인식을 올리오니 감사하옵니다.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시어 저희들이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무궁한 복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췌

내빈 심고

쫓오늘 신랑 ○○○군과 신부 ○○○양의 혼인식을 올리오니 감사하옵니다.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시어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일가친척과 화목하고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

제 19 장 수 연(壽宴)

수연(壽宴)은 회갑(回甲), 고희(古稀), 미수(米壽), 회혼(回婚) 등을 맞이하여 생일이나 적당한 날을 택해서 자손들이 부모에게 축수(祝壽)를 드리는 잔치를 말한다. 식의 명칭은 회갑연, 고희연 등으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연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약력 소개(교우 또는 친구 중에서)
1. 기념품 증정
1. 헌 시(축하하는 시 낭독)
1. 축사(하객 중에서)
1. 천덕송 합창
1. 헌배(獻杯)
1. 심 고
1. 폐 식

※ 식순 중에 축가 등을 포함하거나 폐식 후 여흥을 갖는다.

※ 헌배는 실정에 따라 폐식 심고 다음에 할 수 있다.

제 20 장 상례(喪禮)

천도교의 상례는 첫째 수시(收屍), 둘째 입관(入棺), 셋째 발인(發靚)과 영결(永訣), 넷째 하관(下棺) 및 사진봉안식의 네 단계로 진행한다.

제 1 절 수시(收屍) 및 환원기도식(還元祈禱式)

환원(還元)하면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시신을 수습한다.

가. 깨끗한 형겅이나 헝겊으로 코와 귀를 막고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한 뒤 백지나 형겅으로 얼굴을 덮는다.

나. 머리를 바로 하고 두 팔과 두 손을 바로 펴서 배꼽 위에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포개놓고, 백지(창호지)를 두 치 (二寸, 약 5cm) 정도 너비로 접어 어깨와 손목을 묶은 후 두 다리를 곧게 펴고 두 발을 똑바로 모아 세운 후 무릎과 발목을 단단히 묶어서 시신이 일그러지지 않게 한다.

다. 칠성판(나무판) 위에 시신을 똑바로 눕히고 흠이불로 덮은 뒤에 시상(屍床)에다 옮겨 놓고 병풍이나 휘장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봉안하고 청수를 봉전한 다음 촛대와 향합을 놓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후 환원기도식을 봉행한다.

※ 병풍에는 성령출세를 염원하는 심고문과 휘장 또는 공을기를 걸어 놓는다.

환원기도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고인의 유덕을 추모함)
1. 주문 3회 병송
1. 분 향(상주순)
1. 심 고
1. 폐 식

위와 같은 간단한 절차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고 상주와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애도하되 호곡은 하지 않는다.

환원기도식 심고 예문

「아버님(어머니이면 어머님)의 성령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아버님(어머님)의 육신을 영원히 고별하게 되오니 비통한 심정 이를 데 없사옵니다. 아버님의 성령이시여! 육신은 환원하셨지만 성령은 항상 저희들의 심령과 융합일치하여 계시면서 저희들의 앞길을 소소히 밝혀 주시옵소서.궤

제 2 절 조문(弔問)과 기도식

조 문(弔問)

예탁은 계속 보존하되 제물은 차려놓지 않고 청수 한 그릇만 봉전하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조객들의 조문에 응한다. 조객은 예탁 앞에 정좌하여 분향한 후 심고하고 상주를 향해 배례하여 조의를 표한다.

조객들의 분향 절차

영위가 방 안의 시상 위에 안치된 경우에는 영전에 나가 정좌하고 머리 숙여 분향하고 심고한 후 일어나 상주에게 배례하고 퇴장한다. 교당이나 야외에 예탁을 놓았을 경우에는 영전에 나가 분향하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심고하고 돌아서서 상주를 향하여 경례로 조의를 표하고 퇴장한다.

기도식

가족들은 상례가 끝날 때까지 매일 아침 5시, 낮 11시, 저녁 9시 기도식을 고인의 사진 앞에 모여서 봉행한다. 식순은 매일기도에 준하되 특히 고인의 성령장생을 축원한다.

제 3 절 입 관 식(入棺式)

가. 환원 후 24시간이 지나면 얼굴에 덮었던 솜과 팔과 다리에 묶었던 종이끈을 풀고 입었던 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한 향탕(香湯)이나 축탕(艾湯)으로 수건 세 장을 적신 다음 하나로는 머리와 얼굴, 하나로는 배꼽 이상 상체, 하나로는 배꼽 아래 하체를 씻고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에 본인이 평소에 입던 깨끗한 옷이나 또는 수의(壽衣)를 입히되 내의와 겹바지를 같이 끼어서 입힌 다음 허리띠를 매고 버선이나 양말을 신기고 대님을 맨 다음, 주의(周衣)와 (원칙은 교회 예복을 입힌다) 저고리 속적삼은 한데 끼워서 반듯이 펴놓은 후 그 위에 시신을 올려 놓고 아래부터 차차 치밀어 좌우 손을 소매에 넣은 후에 앞을 여미고 고름을 맨 다음 새 솜이나 탈지면으로 귀와 코를 막고 정한 형겅으로 얼굴을 덮은 후 솜으로 턱을 고이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게 백지나 깨끗한 옷가지로 어깨 위와 좌우를 잘 채우고 백지 접은 끈으로 단단히 묶는다.

나. 준비된 관에 입관할 때에 맨먼저 관 안에 요[地衾]를 펴고 베개를 놓고 시신을 안치한 후 이불[天衾]을 덮고 관 안에 공간이 없도록 입던 옷이나 백지로 짚을 싸서 백백이 채워 운구(運柩)할 때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뚜껑을 덮은 후 결관포(노끈)로 관의 상·중·하를 단단히 묶고 다시 시상 위에 안치한다.

다. 입관 후 병풍이나 휘장으로 가려놓고 그 앞에 예탁을 설치하고 고인의 사진을 모신 다음 청수를 봉전하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입관이 끝나면 상주들은 성복(成服)을 하고

천
도
교
종
법
사

○
암
○
○
○
의

구

천
도
교

○
○
당

○
○
○
의

구

조문을 받으며 입관식 준비를 한다.

라. 영좌의 오른쪽에는 명정(銘旌)을 만들어 걸거나 세운다. 명정은 홍포(붉은 바탕)에 흰색으로 쓰며, 그 폭은 관에 맞게 하고 길이는 2미터 정도로 한다.

명정쓰기 예문

명정은 병풍에 걸어놓기 위하여 세로로 쓰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고인이 교회의 원직·주직 또는 도호를 받은 분일 경우에는 그 최고직명을 표시하고 도호와 성명의 순서로 쓴다. 도호나 교직이 없는 평신도일 경우에는 성년(成年, 만 18세)이 지났으면 도호(道號) 등을 추서하여 쓸 수 있다.

상복(喪服)은 상주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평상복에 상장을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복을 마련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남자 상복 : 한복일 경우에는 흰 두루마기에 검은 동정을 달고 흰 고무신을 신는다. 양복일 때에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검은 구두를 신고 검은 완장을 왼팔에 낀다.
- ② 여자 상복 : 한복일 경우 흰저고리 흰치마에 검은 동정을 단다. 양복일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와 같다.
- ③ 유족은 상복을 입고 친척이나 조객은 상장을 가슴에 단다.

상장의 모양

- ① 검은 양복의 완장
(길이 약 30cm, 너비 약 10cm, 검은색)
- ② 상장의 모양(홀겹 리본식, 길이 9cm, 너비 3cm, 검은색)

입관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경 전 봉 독(성령출세설)
1. 위령송 합창
1. 분 향(가족 및 참례인)
1. 심 고
1. 폐 식

입관식 심고의 예문

「이제 ○○○님을 입관함으로써 ○○○님의 얼굴 모습조차 영원히 못 뵈옵게 되오니 비통하고 애절한 심정 더욱 간절하옵니다. ○○○님의 성령이시여, 육신은 가시지만 성령만은 저희들의 심령과 융합일치하여 장생하시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도록 명

우가 있어지이다.」

제 4 절 발 인 식(發靱式)

입관 후 영구를 빈소에 안치하였다가 영결식을 교당이나 다른 장소에서 거행하게 될 경우 영구가 빈소에서 떠날 때에 다음 절차에 의하여 발인식을 행한다.

빈소에서 영결식을 행할 때에는 발인식을 생략한다.

발인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분 향
1. 심 고
1. 폐 식

제 5 절 영결식(永訣式)

영결식 절차

영결식은 교회장(敎會葬), 총부장(總部葬), 교구장(敎區葬), 가족장(家族葬)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가. 교회장은 교회의 최고 교직이나 최고 원로로서 교회에 끼친 공덕이 높은 분의 정신을 받들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집행 부서를 구성하고 거교적으로 의식을 행하되 일체 행사를 위원회가 책임지고 집행한다.

나. 총부장은 총부의 현직 교역자 또는 교직자로서 환원 또는 순직할 경우에 총부의 책임하에 집행하되 역시 교회장에 준하여 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 부서를 구성한다.

다. 지방교구 원주직 또는 공로자에 한해서는 지방교구장으로 집행하되 절차는 총부장에 준한다.

라. 가족장은 가족이 중심이 되어 조용히 행하되 위원회는 조직하지 않고 호상이나 소속교구 교역자와 교인의 협력으로 집행한다.

영결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 1. 약 력 소 개(친구나 교우 중에서)
- 1. 위령문 낭독
- 1. 조 사(교회 대표자 또는 내빈 중에서)
- 1. 위령송 합창
- 1. 분 향(가족, 친척, 내빈의 순서로)
- 1. 인 사(장의위원장 또는 호상)
- 1. 심 고
- 1. 폐 식

이상과 같이 하되 교회장이나 총부장일 때에는 경우에 따라 헌화, 예포 등을 증보할 수 있다.

영결식 심고의 예문

「고 ○○○(직명) ○○(도호) ○○○(성명) 선생의 성령이시여. 이제 영결식을 불행함으로써 ○○○님께서 기거하시던 가정과 사랑하시던 가족과 미진한 교회 사업을 남기신 채 그 육신은 떠나시게 되오니 비통한 심정 더욱 급할 길이 없사옵습니다. ○○○님께서 비록 육신은 이렇게 가실지라도 성령만은 저희들의 심령과 융합되어 장생하시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있도록 앞길을 소소히 밝혀 주시옵소서.」

※ 영결식 심고도 역시 교회장, 총부장, 교구장, 가족장의 성격에 따라 선생 또는 동덕으로 표시한다.

위령문 예문

한울님 감응하시옵고 스승님 감응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고 ○○○님의 영결식을 올리면서 유가족을 비롯한 친척 친지와 신앙을 같이 하던 친포형제들은 애절한 슬픔과 한없는 추모의 정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요 생자필멸(生者必滅)이라는 말도 있듯이, 무릇 만나는 자 반드시 헤어지고 살아 있는 자 언젠가는 반드시 환원하는 것이 천리요 자연의 이법이라 하더라도, 오늘 뜻밖에도 ○○○님을 영원히 떠나 보내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고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사무치도록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 일찍이 우주와 인간의 근본을 밝혀 주셨으니, 모든 사람과 사물은 제각기 따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형체는 비록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성령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길이 남아 있다 하였으니 저희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의 이 슬픔을 이겨 나가려 합니다.

경에 이르기를 “우주는 본래 영의 표현으로서 영의 적극적 표현은 형상이 있는 것이요, 영의 소극적 섭리는 형상이 없는 것이니 영과 세상은 같은 이치의 두 측면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서 만기만상의 이치를 전혀 한몸에 갖추었으니 사람의 성령은 이 대우주의 영성을 순연히 타고 난 것이며,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표현되고 선사의 정령은 후학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영원히 이 세상에 나타나 활동함이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천지만물은 한 가지로 순응하여 시대억조와 같이 진화하므로 그 심법은 결코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요, 전부 이 세상과 융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라” 하였습니다. 대신사의 심법이 곧 우주의 심법이니 우주의 심법을 깨달은 자 성령으로 출세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히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님께서는 일찍이 천도교에 입도하시어 천덕사업에 이바지하셨고 독실하게 성령수련을 쌓으셨으니 반드시 성령으로 출세하여 이 세간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국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님의 공덕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이며 그 위대한 정신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장생하시면서 영원히 활동함이 있을 것이며 그 음덕은 자손에게 길이길이 미칠 것입니다. 여기 남은 저희들은 ○○○님의 못다 이룬 유업을 달성하기로 영전에 맹세하오니 ○○○님의 성령이시여, 길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계시면서 항상 ○○○님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밝은 광명을 내려 건전한 발전이 있도록 명우가 있어지이다.

포덕 ○○○년 ○월 ○일
천도교 ○○ 교구

제 6 절 하관식(下棺式)

하관 절차

가. 묘지에 안장할 경우 : 영결식이 끝나고 영구차나 상여가 발인할 때 명정(銘旌)과 사진을 상여 앞에 봉안하고, 묘지까지 운반되면 우선 평평한 장소에 영구를 안치하고 영구 앞에 예탁을 설치하고 사진을 봉안하고 향을 피운다.

천광(穿壙)이 끝나면 하관하고 그 위에 명정을 덮고 횡대를 덮은 후 흙으로 가리기 전에 관 앞에 예탁을 설치하고 사진을 봉안하고 청수를 봉전하고 촛불과 향을 피우고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식을 행한다. 식이 끝나면 곧 성분에 착수한다.

나. 화장(火葬)할 경우: 화장장 분구(焚口) 앞 영구대에 영구를 안치하고 예탁을 설치하고 사진을 봉안하고 청수를 봉전하고 촛불과 향을 피우고 식을 행한다. 식이 끝나면 영구를 분구로 옮긴다. 유골은 정한 곳에 안치 또는 매장하거나 뿌린다.

※ 아직은 재래의 관습으로 매장을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화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관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참례인 일동)
1. 경 전 봉 독(성령출세설)
1. 분 향(상주와 교회 대표)
1. 심 고
1. 폐 식

하관식 심고의 예문

「고 ○○○님의 성령이시여! 이제 하관식을 행함으로써 ○○○님의 형해(形骸)마저 뉘을

수 없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허전한 심정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님의 성령만은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면서 장생하시옵고, 저희들의 대원인 포덕천하·광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 건설의 대업 달성과 또한 선생의 가정과 자손들의 앞날에 무궁한 번영이 있도록 명우가 계셔 주시옵소서」

※ 초우, 재우, 삼우제 등 재래의 상례 행사는 일체 폐지한다.

제 7 절 사진봉안식(寫眞奉安式)

장례식이 끝나면 가족과 친척들은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귀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사진봉안식을 행한다.

사진봉안식 식순

1. 개 식
1. 사 진 봉 안(예탁 위에 안치한다)
1. 청 수 봉 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분 향(가족, 친지, 교우)
1. 심 고
1. 폐 식

제 8 절 상기(喪期) 및 탈상(脫喪)

가. 상기는 장례 후 3일까지로 한다. 장례를 치른 뒤 3일째 되는 날 첫 성묘 하러 갈 때까지 상복을 입고, 묘전에서 제복(除服)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날 저녁 9시에 자택에서 가족과 교우가 모여서 제복식(除服式)을 행하고 탈상한다.

나. 그 다음은 매년 환원한 날 제례를 지내며, 심상(心喪)으로 영원히 고인의 유덕을 추모한다.

제복식 식순

1. 개 식
1. 청 수 봉 진
1. 심 고
1. 주문 3회 병송
1. 경 진 봉 독(성령출세설)
1. 제 복(검은 동정을 떼어 소각함)
1. 심 고
1. 폐 식

※ 성묘는 참례식 식순(본 의절 61면)에 준한다.

제 21 장 제례(祭禮)

제 1 절 제례의 절차

제례는 매년 고인이 환원한 날 저녁 9시에 가족과 친척이 모여서 고인을 추모하는 제사를 말한다. 집안 정결한 장소에 예탁을 마련하고 고인의 사진을 모신 후 청수를 봉전하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제례식순

1. 개 식

1. 청수 봉전

1. 심고

1. 주문 3회 병송

1. 약력 소개

1. 경전 봉독(성령출세설)

1. 추모사

1. 분향(유가족 및 참례인 순)

1. 심고

1. 폐식

※ 교회적 공식행사는 반드시 청수 한 그릇만 봉전하고 식을 진행한다.

제 2 절 제례식 심고의 예문

「○○○님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세월이 덧없어서 어느덧 ○○○님께서 환원하신 지 ○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추모의 심정은 더욱 새롭습니다. 오늘 ○○○님의 제○주기를 맞이하여 가족과 친척, 친지들이 모여서 추모의 제례를 올리오니 감응하시옵소서. 사람의 육신은 환원하여 없어지지만 성령은 가족과 동덕들의 심령 속에 융합하여 영원히 같이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님이시여 성령으로 출세하시어 장생하시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있도록 감응하시옵소서」

제 3 절 추모사(追慕辭)의 예문

「○○○님의 환원 제○주기를 맞이하여 가족과 친척, 친지 및 일반 동덕들은 추모의 심정이 더욱 간절합니다. 그 동안 가정적으로는 ○○○한 경사도 있었고 ○○○한 ○○일도 있었음을 삼가 아뢰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님의 유지를 받들어 대도의 목적 달성과 가정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 위의 내용을 줄거리로 하여 고인의 유덕과 가족의 형편을 참작하여 적절히 표현한다. 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할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 제례를 따로 봉행할 수 있다.

제 22 장 차례(茶禮)

제 1 절 차례의 절차

차례는 한국의 전통 의례로서 매년 1월 1일과 추석(秋夕)에 조상께 드리는 의례를 말하며, 차례의 절차는 제례에 준하되(약력 소개는 생략) 아침식사 시간에 봉행한다.

※ 시간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2 절 차례의 심고 예문

한울님과 스승님 조상님 감응하시옵소서. 오늘 1월 1일(또는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오니 감응하옵소서.

조상님들의 성령이시여! 항상 저희 후손들의 심령과 융합되시어 자유극락을 누리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울님과 스승님의 뜻을 잘 받들고 화목하여 가중차제 우환없이 1년 365일을 하루같이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만사여의, 도성입덕, 도가완성, 교회 발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의 대원을 하루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밖의 소원)

제 5 편 경전(經典)과 예품(禮品)

제 23 장 경전(經典)

천도교의 경전은 대신사께서 직접 저술한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비롯하여 해월신사, 의암성사의 법설을 수록하고 있다. 경전은 항상 깨끗한 곳에 소중하게 보존해야 하며, 봉독할 때에는 스승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듯이 경건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제 24 장 궁을기(弓乙旗)·궁을장(弓乙章)

궁을기(弓乙旗)는 천도교의 교기(教旗)이다. 의암성사께서 대신사의 득도(得道) 당시 받으신 궁을영부(靈符)를 상징하여 제정하였으며 포덕 47년부터 게양하고 있다. 궁을기는 심령의 약동상태, 시천주(侍天主)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 성·심·신 삼단(性心身三端), 천인합일(天人合一) 등 인내천(人乃天)의 요체(要諦)를 밝혀 주고 있다. 천도교인은 시일(侍日), 기념일, 스승님 탄신일과 순도일 등 교회의 중요 행사 때 가정과 교

당 또는 행사장에 궁을기를 게양한다. 평소 궁을기는 정중하게 기함(旗函)에 보관해야 하며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각한다. 교서의 표지나 교당 내부 전면에는 궁을장(弓乙章)을 부착한다.

궁을휘장은 옷웃 왼쪽 가슴에 부착하여 천도교인임을 나타낸다.

(궁을기)

(궁을장)

제 25 장 스승님의 존영(尊影)

스승님의 존영은 정중하게 봉안하여야 한다. 규모일치(規模一致)를 위하여 교당 정면에는 궁을장만 부착한다. 교회 사무실이나 기타 공공장소에는 대신사 존영을 벽의 중앙에 봉안하고, 정면을 향해서 존영의 왼쪽에는 국기, 오른쪽에는 궁을기를 부착한다.

제 26 장 예복(禮服)

입교식, 시일식, 기념식, 위령식 등의 의식을 거행할 때는 의식 집행자는 교회에서 제정한 예복을 착용한다.

한복을 입을 경우에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며 이 때 예복은 입지 않아도 된다.

※ 포덕 141년 현재 사용되는 예복은 포덕 109년 전국대의원 대회 결의로 제정되었으며, 포덕 111년 6월 11일 중무위원회의 및 기관연석회의의 결의를 거쳐 전국에 공고되어 사용되고 있다.

제 27 장 염주(念珠)

천도교인은 항상 천덕사은(天德師恩) 염념불망(念念不忘)하면서 주문을 외우며 염주(念珠)를 갖고 다닌다. 염주에는 21주와 105주가 있다.

수련할 때는 반드시 염주를 들어야 하며, 저녁 9시 기도식과 새벽기도식 등의 기도식과 모든 의식에 집례자와 참례인 모두 염주를 손에 들고 엄숙한 자세로 봉행한다. 염주는 수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예품이니만큼 언제나 소중하게 지녀야 하며 장식품이나 완구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 28 장 청수기(清水器)·청수상(清水床)

천도교인은 매일 저녁 9시 기도식과 새벽기도식 등의 기도식 및 모든 의식을 봉행할 때 반드시 청수 한 그릇(清水一器)을 봉전한다. 그러므로 모든 도가(道家)에는 반드시 청수기(清水器)와 청수분작기(清水分酌器), 청수상, 청수상보를 비치해야 한다. 교당에는 이 외에도 예탁이 있어야 한다.

청수기와 상은 깨끗한 곳에 놓아 두어야 하며 기도식 및 각종 의식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청수기의 크기는 보통 식기(食器) 정도로 하고, 청수상의 크기는 밥상보다 작고 원형인 것이 좋으며, 청수기, 청수상, 청수상보, 예탁 등에는 가급적 궁을장을 조각하거나 부착한다. 예탁은 교당 크기에 알맞게 한다.

제 29 장 기 타

도가표(道家標) 또는 앞으로 다른 수행예품이 새로 제정되면 수행에 활용하는 예품이니만큼 언제나 깨끗하고 정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6 편 생활예절(生活禮節)

예절(禮節)이란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말한다.

사람은 예절을 지킴으로써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높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다.

천도교인은 각자위심(各自爲心)하여 불순천리(不順天理) 불순도덕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의 도덕을 지키게 하고 새 세상을 건설해야 하므로, 모든 교인들은 예절을 철저히 지켜 새로운 도덕문명세계 건설의 기초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천도교인은 사인여천(事人如天) 정신으로 항상 사람을 한울같이 섬기는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못을 용서하며, 욕을 하거나 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민중을 속이거나 억압, 착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인은 성·경·신(誠敬信)을 좌우명으로 삼고 경천(敬天)·경인(敬人)·경물(敬物)의 삼경사상을 실천하며, 모든 사람은 물론 천지만물과 화합하는 동귀일체(同歸一體)·만화귀일(萬和歸一)의 새 생활, 새 예절을 실행해야 한다.

제 30 장 가정 생활예절(家庭生活禮節)

제 1 절 가화(家和)와 청결(清潔)

교인은 항상 가내가 화목하도록 해야 하고 집 안팎을 청결히 해야 한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결하면 그 가정의 불행은 물론 이웃에게도 불편을 주게 되고 한울님의 감응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가도화순(家道和順)과 정결도장(淨潔道場)을 위해 힘써야 한다.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분노한 얼굴빛을 내어 도기(道氣)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2 절 부화부순(夫和婦順)과 내수도(內修道)

천도교는 내수도(內修道)를 으뜸으로 하므로 특히 부부가 함께 내수도문(內修道文)과 내칙(內則)을 체행함으로써 항상 부화부순하고 도덕군자, 개혁의 역군이 성장하도록 힘써야 한다. 부화부순이 되지 않으면 한울님이 싫어하시고 도가 상하므로 도성입덕은 물론 도가완성도 보국안민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 해월신사법설 〈내수도문(內修道文)〉 참조

제 3 절 효도(孝道)와 보국안민(輔國安民)

스승님께서서는 항상 나라를 근심하고 효도를 강조하시면서 몸소 실천궁행하시었다. 교인은 스승님 명교에 따라 항상 한울님을 부모님같이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제 31 장 일상생활 규범(日常生活規範)

제 1 절 일상생활

교인은 평상시에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기침(起寢)과 취침(就寢)을 일정한 시간에 하고 일을 시작할 때와 끝났을 때 반드시 심고(心告)하며, 물품을 주고받을 때에는 “○○로부터 ◇◇을 받습니다” “○○에게 ◇◇을 드립니다” 등으로 먼저 한울님께 고하고, 식사와 청결과 집무와 휴식 등을 규율 있게 해야 한다.

부모와 어른을 모실 때는 정중하게 문안인사를 하고 성품을 거스르지 말 것이며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며, 집을 나고 들 때에는 반드시 심고하고 어른께 고하는 예의를 지키고 항상 시간 약속을 지키며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제 2 절 의관정제(衣冠整齊)

천도교는 과거에 웃고름을 떼고 단추달기와 색옷입기 운동을 전개한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 교인은 항상 의관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 의복은 정결하게 입어야 하며 생활 정도와 분수에 맞게 착용할 것이며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검소한 옷차림을 한다.

제 3 절 음식(飲食)

사람이 식사의 예절을 소홀히 하면 천지부모님께 불경함은 물론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 스스로 수양이 부족함을 나타내게 된다.

식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절은 지켜야 한다.

1. 그릇에 밥을 담을 때에는 먼저 숟뚜껑을 열고 국이나 장을 한 그릇 놓고 심고한다.
2. 음식이 마련되면 우선 밥과 반찬 그릇의 뚜껑을 열고 경건한 마음으로 ‘한울님의 감응(感應)’을 기원하고 교회의 목적과 자기 소원을 염원한 후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식고(食告, 식사할 때의 심고)를 하고 식사를 하며, 식사가 끝나면 ‘감사히 먹었습니다’라고 심고한다. (심고 예문은 본 의절 ‘심고’ 참조)
3. 찬밥이나 먹던 음식을 먹을 때에는 고하지 않고 그저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한다.
4.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너무 급히 먹거나 느리게 먹지 말며, 한울님의 덕을 생각하면서 단정하게 해야 한다.
5. 다른 사람과 식탁을 같이 하였을 때에는 식사를 혼자 먼저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자기만 먹지 말며, 과식하지 말아야 하며, 어른과 같이 식사할 경우에는 먼저 끝내거나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한다.
6. 음식물을 취급하는 이는 특히 정결과 위생에 유의해야 하며, 음식물을 남겨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길을 걸을 때 뒷짐을 지거나 길을 가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삼가야 한다.

제 4 절 인사(人事)하는 법

절은 사인여천(事人如天) 정신을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절 잘하는 천도교인’이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옛날 풍속은 어른의 처지에 있을 때에는 절을 받기만 하였으나, 천도교인은 서로 맞절을 한다.

절은 서서 하는 예도 있고 엎드려 큰절을 하는 예도 있다.

절을 할 때에는 사람을 한울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정중하게 해야 한다. 절은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좋다.

방 안에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큰절을 하며, 의자가 있는 교당이나 옥외(屋外)인 경우에는 선 채로 허리를 45도 구부려 정중하게 경례를 한다.

제 5 절 언어(言語)

말은 생각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말이 반드시 바르면 사람이 다 바르게 되고 세상이 바르게 된다는 말씀과, 또한 말은 행할 것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한 것을 돌아보아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하라는 스승님의 교훈을 명심하고 정성, 공경, 믿음의 정신으로 말을 해야 할 것이며, 노기(怒氣)를 띠거나 간교한 수단과 거짓으로 꾸미지 말아야 한다.

전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수심정기(守心正氣)하고 사인여천(事人如天) 정신으

로 친절하고 간결하고 침착하게 하여 요령과 순서를 분명하게 할 것이며, 정중하고, 부드럽고, 여유 있고 정답게 하여 거만하고 악하고 표독한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모든 사람에게 경어를 쓰도록 힘써야 한다.

제 6 절 자 세(姿勢)

자세가 바르면 모든 예의가 아름답게 되고, 태도가 좋지 못하면 모든 예의가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 남을 바라볼 때는 얼굴을 너무 쳐다보거나 결눈으로 보지 말고, 특히 뒷짐지지 말아야 한다. 듣는 태도, 앉는 태도, 서는 태도, 걸어가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밥 먹는 자세, 눕는 자세, 말하는 태도, 얼굴의 표정 등 일거일동을 정성, 공경, 믿음 그리고 효·제·온·공(孝悌溫恭)으로 수심정기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제 7 절 공중도덕(公衆道德)

스승님 법설에 지인공애(至仁公愛)라는 말씀이 있다. 천도교인은 사(私)만 생각지 말고 공(公)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 선악(善惡)의 갈림은 한울님의 뜻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데 있다.

공을 더 중히 여기는 민중은 발전의 길을 걷게 되고, 사(私)를 더 중히 아는 민중은 다같이 퇴보의 길로 빠지게 된다. 교인은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눈이 어두워 사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

언제나 말 없고 소리 없는 한울이 두렵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히 다음 사항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1. 나는 언제나 전체 속의 한 사람임을 알아 나의 모든 언행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삼가야 한다.
2. 가정의 규칙과 교회 및 소속 단체의 모든 규정과 질서를 지키며, 공중집회 장소에서는 그 장내의 규율을 지키고 잡담과 무질서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시간과 약속을 지키고 회의 규칙을 엄수하고, 말은 발언권을 얻어 조리 있게 하되 성내지 말고 경어를 쓰며, 항상 사(私)를 버리고 공중을 본위로 해야 한다.
4. 남의 것이나 공공물건을 나의 물건같이 아끼며, 공공시설은 조심히 사용하고 공용기관의 경내에 더러운 물건을 버리지 말며 눈에 보이거든 줍거나 없앤다.
5. 교통질서를 지키고 공중화장실 등을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
6. 가로수나 동네 주변의 수목을 아끼고 보호하며, 사택 등에 거주할 때에는 조심하고 훼손치 말며,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바로 복원해야 한다.
7. 천도교인은 언제나 분과 행동을 경계하고 동귀일체 정신으로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제 8 절 대인접물(待人接物)

교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접물을 할 때 한울님과 스승님 뜻에 맞도록 각별히 힘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실천지침으로 삼는다.

1. 스스로 잘난 체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2. 거짓으로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
3. 교만하고 사치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4. 어린이를 경솔히 때리지 않는다.
5. 부부지간에 서로 한울님 모시는 마음으로 섬긴다.
6. 사람을 대할 때에 욕을 참고 너그럽게 용서한다.
 7.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주로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
8. 모든 물건 아끼기를 내 몸 살피듯한다.
9. 날짐승이나 아무 초목의 싹이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이 의절은 포덕 139년 4월 2일 제2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연원회에 자구 수정을 위임하였으며, 수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친 후 포덕 141년 4월 3일 정기연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동 4월 25일 개정 공포하여 실시한다.

10. 자연환경 소중히 하기를 부모님 살같이 한다. ☑

천도교의절(天道敎儀節)

포덕 109년 4월 5일 초판 발행
 포덕 114년 4월 5일 3판 발행
 포덕 116년 4월 6일 증보초판 발행
 포덕 122년 5월 1일 증보재판 발행
 포덕 132년 4월 10일 증보판 발행
 포덕 134년 6월 1일 증보신판 발행
 포덕 141년 9월 15일 개정신판 발행

발행인 김 광 욱
 발행처 천 도 교 중 앙 총 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전화: (02)732-3956, 734-8642
 전송: (02)739-4533
<http://www.chondogyo.or.kr>

<값 3,000원>